주일예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주일예배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3월 27일 (제83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 우 컬 럼

행복한 사람이란?

나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에게는 정말 좋은 네 명의 친구가 있었다. 자기를 낫게 하겠다고 모험도 불사한 친구 말이다. 그는 참으로 행복한 자라는 생각이 든다. 그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그가 아프기 전에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증거다. 왜? 꿀통을 발로 차면 절대 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이런 사색에 잠기곤 한다. 내가 죽을 때 나의 가족을 부탁할 만한 사람이 과연 내게는 있는가 하는 생각이다. 내가 꿀통을 차버린 일은 없는지. 내 성을 너무 높게 쌓아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지.

잠언에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다. 그 지혜 중 하나가 남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자고로 일하는 소는 절대 뒷발질을 하지 않고, 마차를 끄는 소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자기 일에 바쁘고 매진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하지 않으며, 남에게 발길질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남의 말이나 하고 다니는 자, 남 딴죽이나 걸려는 자를 보면 대체로 할 일이 없는 자다. 왜 할 일이 없을까? 그런 자를 상대하고, 그런 자와 거래하고, 그런 자를 채용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내 성을 너무 높게 쌓으면 사람을 얻을 수 없다. 내 것만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자와 상대해줄 사람은 없다. 성벽을 허물고 발 같은 사람도, 눈 같은 사람도 품을 때 모두가 연합하여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사람 인(人)자처럼 서로 기대고, 서로 힘이 되어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 진정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을 때 박수를 쳐줄 사람이 많은 자다.

곁에 사람이 없걸랑 나를 성찰하여 깨달으라.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전가하지 말고 내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변화하라. 외줄로 살지 말고, 삼겹줄로 살아라. 그것이 당신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리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다

"지극히 작은 것도 최선을 다하는 정신만이 명작이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지혜의 다리가 놓여진다. 책임감 또한 지혜의 산실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혜를 구하라."

목사님께서 지난 주 직원들을 훈계하시며 하신 말씀이다.

목사님은 신문이나 영상편집에 대해 영화 '벤허'의 100번 시사회를 거론하시며 늘 '명작, 명작, 명작'을 강조하신다. 사진을 찍든, 비디오 촬영을 하든, 신문제작을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다.

목사님의 명작정신은 당신의 좌우명이라 자주 언급하시는 누가복음 16장 10절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는 말씀에 다름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고도의 집중력과 최선의 경주를 통해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목사님 30년 목회를 항상 강하게 떠받치고 있다. 경기에 임하는 씨름선수가 샅바 줄을 단단히 잡듯이, 토끼를 사냥하는 사자가 혼신을 다하듯이, 목사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곧 한 사람 앞에서든지, 열 명, 백 명, 천 명, 만 명, 십만 명 앞에서든지 동일한 집중력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신다. 이게 아주 조직적으로 체질화 되어 계신 분인지라 '대충, 얼렁뚱땅, 그러려니, 되면 좋고 안 되도 그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나 처신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 아니 아예 체질적으로 싫어하신다.

해외집회영상을 통해 무수히 보아왔겠지만, 이는 말뿐이 아니라 실상으로 현장에서 늘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모든 현지 목회자들이 단상 아래로 비를 피해 숨거나 차를 타고 자리를 뜰 때도 목사님은 통역관들을 이끌고 온 비를 다 맞으며 설교를 멈추지 않았고, 성도들과 함께 운동장을 돌았다. 또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려던 목회자들이 왕족의 장례식에 모두 빠져나가 몇 사람 밖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의에 최선을 다하셨다. 이는 내가 할 일이고, 그러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인 것이다. 멕시코에서는 집회장소가 술집이었는데, 직접 진두지휘하여 술집을 깨끗이 청소한 뒤 집회를 진행하셨다. 45도가 넘는 열사지역에서 최악의 조건에 체념치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 쏟아지는 비를 멈추고, 바람을 잠잠케 하며,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는 기적적인 사건들도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기에 가능한 일들이라 믿는다. '결코 기적은 기적처럼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의 확실한 증거들인 셈이다.

"하나님은 온도계 같은 분이다." 라고 자주 말씀하신다. 정확무오한 하나님, 법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이심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다. 곧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말씀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맡겨진 일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하나를 보면 다 알 수 있단 말이다. 그 사람이 주인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지, 머슴사상으로 '눈가리고 아웅' 하는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2~23).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
(비바람에 찢겨진 단상 앞에서 육성으로 설교하신 코스타리카 집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찌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1~2).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충성된 자세로 하라는 말씀이다. 충성이 무엇인가? 가운데 중(中)에 마음 심(心)이 합해진 것이 충(忠), 곧 진심과 정성이요, 말씀 언(言)에 이룰 성(成)이 만나 성(誠), 역시 곧 진심과 정성이다. 나의 진실한 마음과 자세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충성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며 요구하시는 기준이 바로 충성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주일은사집회
장소: KBS88체육관 시간: 매주 주일 오후 3시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24:30~34)

게으름 = 더러움 = 악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창31:40). 이것은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왕상19:10). 이것은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다윗 역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시119:148). 사도 바울도 부지런히 사역했음을 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살전2:9).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에게 기자가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글쎄요,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굳이 말한다면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것 외에 내세울 다른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대 신화를 쓴 정주영 회장, 그는 쌀가게 시절부터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해가 빨리 뜨지 않는다고 역정 냈으며, 7시면 회사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든 육적인 사람이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부지런한 자가 성공하고 부귀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잠10:4), "부지런한 자

평생 직장은 있으나 평생 직업은 없다

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잠12:24),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잠12:27),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잠13:4),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22:29)…. 한 마디로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마치 빛과 어두움처럼 극과 극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잠24:30~34)는 말씀을 저는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으름=더러움=악'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게으른 자가 더러운 것은 자명한 일이고, 더러운 곳에 악, 귀신이 틈타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핑계 대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미 그들을 간파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쩌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으느니라"(잠26:13~15).

총회장 이초석 목사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자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돈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은 생각은 잘라내야 합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면 더 썩기 때문입니다.

다. 그러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마25:16)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마25:17)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둘 다 즉시 부지런히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뒀습니다. 게으름 피운 거지요. 그리고는 주인이 와서 회계하자 핑계를 댑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마25:24~25). 자기의 게으름을 탓한 게 아니라 되레 주인을 탓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마25:26~30)고 했습니다. 이런 썩은 생각을 잘라내야 게으름을 떨칠 수 있습니다. 두 친구가 사냥을 가다 그만 한 친구가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늪에 빠진 친구가 허우적거리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밖에 있던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이봐, 그 늪은 그리 깊지 않을 거야. 발을 땅에 대봐." 이에 늪에 빠진 친구가 허우적거리며 말했습니다. "안 돼. 난 이제 죽을 거야." 그러자 밖에 있던 친구가 사냥총을 친구에게 겨누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네. 잘 가게." 그리고는 방아쇠를 잡아당기려 하자 늪에 빠진 친구가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늪을 뛰쳐나와 친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를 구해줄 생각은 않고, 날 죽이려고 해?" 간신히 친구가 진정되자 그가 총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를 향해 총구를 겨눈 것이 아니네. 너의 썩은 생각을 겨눈 거야."

언젠가 아들 녀석과 목욕탕에 간 일이 있습니다. 욕탕 속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아들 녀석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가르칠까 궁리하다가 아들 녀석의 머리를 탕 속에 쳐 박고 힘껏 눌렀습니다. 놀란 아들은 머리를 빼내려고 애를 썼고, 저는 더욱 힘껏 눌렀습니다. 숨이 가픈 아들은 젖 먹던 힘까지 다하여 머리를 쳐들고 물 위로 올라와 저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성공하는 비법을 가르쳐달랬는데 머리는 왜 물 속에 쳐 박아요?" 화를 내는 아들을 향하여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속에 쳐 박히니 어떠하더냐?", "죽을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든 죽을힘을 다하면 못할 게 없단다. 지금 네가 한 것처럼 말이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생각하고 노력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성공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미물인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을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잠6:6~11).

게으른 사람은 현재뿐이고 부지런한 사람에겐 미래가 있다

게으른 자는 자기만 궁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망하게 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잠10:26). 이빨을 초에 담가 놓아보세요. 다 삭아버릴 것이고, 눈에 연기를 쏘면 눈물만 펑펑 쏟고 앞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게으른 자를 쓰면 손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연이요 지연이요 혈연이라 해도 게으른 자를 쓰면 안 됩니다.

일하기 싫습니까? 도전하기 싫습니까? 노력하기 싫습니까? 배우기 싫습니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사는 수밖에요.

예전에 현모양처의 이미지는 남편과 자식에게 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언 31장의 현숙한 아내 상(像)은 부지런한 여인이라 말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잘 간수함은 물론이고, 외부활동까지도 능동적으로 잘 하는 여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슈퍼우먼이지요. 성경은 주의 종들도 부지런하라고 하십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잠27:23). 주의 종들뿐 아니라 성도들도 그래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롬12:11~13).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12:11).

'게으름=더러움=악'이요, '게으름=무책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부지런한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수요예배
장소: KBS88체육관
시간: 수요일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객원컬럼::

알파고(AlphaGo)와 창조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바둑 고수 이세돌에게 완승했습니다. 바둑을 한수 한수 둘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의 개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알파고는 이와 같이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의 수를 1,202개의 연산장치로 계산하여 최적의 다음 수를 찾아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지적 영역을 컴퓨터에게 일부 부여하는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와 관련하여 태초부터 현재까지 인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과가 3개 있다고 합니다. 아담의 사과, 뉴튼의 사과, 그리고 스티브 잡스(애플의 창업자)의 사과가 그것입니다. 아담의 사과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상징하면서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창조원리의 일부라고 간주됩니다. 뉴튼의 사과는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과학의 원리로 연결하면서 인간의 창조영역을 과학적 논리로 체계화하고 확대시킨 역할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사과는 인간의 감성과 지성의 영역을 기계장치인 전화기와 연결시킴으로써 인간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 시킨 스마트폰을 탄생하게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창조란 사물을 연결하는 것이다(Creativity is connecting things)." 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 창조원리와 과학의 연결, 인간과 기계의 연결,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이 이와 관련됩니다.

창조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각자 최선을 다하여 한 분야에 전념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축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상상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일 년에 두 번씩 아무도 없는 곳으로 잠적하여 생각 주간이라 불리는 이 기간에 자신만의 휴가를 가집니다. 휴가기간 중 업계동향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보고서 등을 읽으면서 세상의 흐름을 뒤바꿀 결정들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지식과 생각하는 시간을 영성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천지만물을 창조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창조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창조력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관섭 장로

::겨자씨만한 믿음::

너의 언행심사는?

인간과 동물에게는 거울신경세포라는 세포가 있다. 이 신경세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거울처럼 반영한다는 뜻에서 거울신경세포라고 불리게 되었다. 어떤 행동을 관찰하던 그 사람이 스스로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이다. 아기들이 어른들의 행동을 잘 따라하는 것도 거울세포 덕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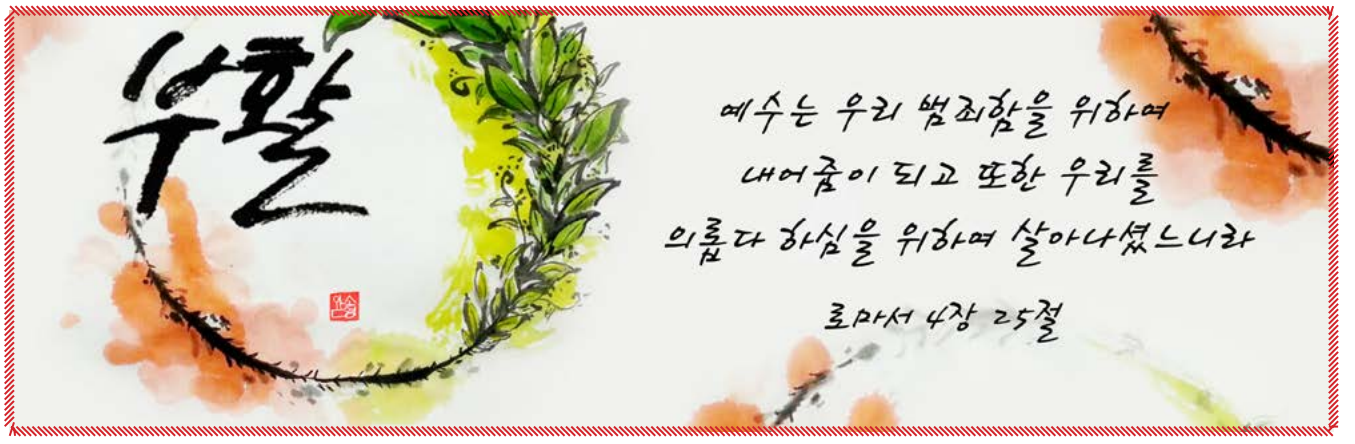
주변 상황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모방을 하는 것이 사람이다. 때문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행실이 나쁜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행실이 나빠질 것이고, 주변에 깨끗한 사람이 많으면 자신도 깨끗함을 입는다. 그래서 선하고자 한다면 악한 자들의 편에 서지 말 것이며, 그들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둘도 없는 좋은 친구이자 아버지이며 삶의 동행자이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류가 구원받았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다.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충격을 받고 지난날을 회개하며 성화되어 가는 성숙한 삶을 살도록 변화하게 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품고 사시는 이초석 목사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예수님 가까이에 이르는 길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것은 너로 인해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 빛이 희미할망정 그 빛들이 모여 세상을 밝히고, 소금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방부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언행심사가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5).

김성일

cre8tor@naver.com



::성경에세이::

의인 아흔아홉보다 귀한 나무 한 그루

여보게!

얼마 전 기도원에 있었을 때의 일이네.

내가 기도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주변 지교회의 내 제자들과 성도들이 낙지며, 아구며 요즘 제철이라며 주꾸미, 심지어는 사슴까지 가지고 나를 찾아왔네. 생각해보면 나는 참 행복한 목사지.

마침 그날은 우리 기도원 식구들이 정읍으로 나무 한 그루를 실으러 나간 날이었네. 정읍교회 이은실 전도사가 10년 전에 하나님께 드린 나무인데, 이제는 가져올 때가 됐다고 해서 나간 거라네. 그런데 소식이 오기를 나무가 너무 커서 2.5톤 트럭으로도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이차가 안 되면 다른 차는 될 것이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헬기로 하면 되지." 라고 말해줬지. 내가 경험이 있지 않은가. 애틀랜타 골프하우스에서 디스플레이 해놓은 앤틱을 그날 안 판다고 해서 다음 날 가서 산 경험 말일세.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가봐야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를 찾아온 성도들에게 다녀와서 파티를 하자고 양해를 구하곤 정읍으로 갔네. 가봤더니 정말 어마어마하고 잘 생긴 나무였네. 한 뿌리에서 세 나무가 나와 거목이 된 대단한 나무였네. 그 상태로 운반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 전문가인 집사님에게 나무를 좀 다듬으라고 해서 좀 성형을 했더니, 트럭으로 운반이 가능해졌지.

그런데 그때부터 일이 생겼지 뭔가. 나무가 있던 땅 주인이 노발대발하는 거였네. 이 땅을 팔 때 이 나무는 가져갈 거라고 약속한 거라 내주기는 해야 하지만, 그동안 가꾼 것은 이 사람들이었거든. 내가 그들이 운영하는 떡집에 간식을 사러 들어갔을 때, 그 부부가 기분이 많이 상해 있다는 것을 짐작했네. 그런데 10년 만에 교회로 다시 돌아온 함 집사 부부는 나에게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이 집 어머니가 우리 정읍교회 성도였다. 내가 업고 다니면서 기도 받으러 다녔다'고 전해줬네. 그 어머니는 5형제가 교회에 다니기를 평생 기도하다 돌아가셨다는 거였네.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땅 주인 부부를 만났다네. 내가 인사를 건네고 대화를 시작하자 그들 부부는 나에게 그간 맘이 상했던 이야기를 털어놨네. 예전에 다른 나무를 캐어가면서 뒷정리를 해주지 않은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등등…. 그들은 이은실 전도사에게 몇 백만 원을 줄 테니 이 나무를 가져가지 말라고 했었나보네. 그런데 이 나무를 캐간다고 하니 그간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진 거지. 나는 잠시 생각했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너무 바빠서 이 현장에 못 올 거라고 했지만 함 집사의 아내는 무슨 일이 터져서라도 내가 정읍에 올 거라고 말했다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한 것이라고. 이것은 당초부터 하나님이 이 나무를 통해 5형제를 구원하려고 만든 드라마였던 거지. 나는 그들에게 "이 나무는 당신들 것이요. 나는 가져가지 않겠소." 하며, "씨를 뿌리면 알곡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는 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덕이 모자란 사람도 있지요."라고 말했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줬더니 그들이 내 손을 덥석 잡더군. 나는 "어머니의 뜻대로 예수 믿으라."고 하고 밖으로 나와 나무를 원상복귀하고, 뒷정리도 깔끔히 할뿐더러 내일 와서 물도 주라고 지시했네.

나무 전문가인 집사는 이 나무를 서울로만 운송하면 1억은 족히 받을 수 있겠다고 안타까워했네. 또 이은실 전도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며 속상해 했지만 이 나무를 통해 영혼구원이 되었음을 알고 기뻐했지. 이 나무 한 그루로 5형제를 구원했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나.

여보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인데, 그깟 나무 한 그루가 대수겠는가. 그 날 밤 나는 기쁨에 잠을 설쳤다네. 너무 기뻐서! 이건 부활절에 주님께 드린 나의 선물이었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15:7).

朋友

::내가 매일 기쁘게::

부활절 달걀(Easter Egg)의 유래

부활절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죄에서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 찬양해야 될 복되고 복된 날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부활절은 가장 큰 축제의 날이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평안한 삶을 누리며,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은 데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낀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부활절 달걀'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부활절 달걀'이 '부활절' 보다 더 많이 알려졌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도 '부활절 달걀'을 보면 그게 무엇인지 알고 손을 내밀고는 한다. 어쩌면, '부활'의 의미보다 '부활절 달걀'이 더 유명해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행여나 '부활'의 참된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염려하면서 '부활절 달걀'의 유래를 찾아보았다.

부활절 달걀은 언제부터였을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로자린드 부인의 이야기이다.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징병된 후 갈 곳이 없는 로자린드 부인을 마을 사람들이 보살펴 주었다. 그녀는 그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마을 아이들에게 달걀에 색을 칠하고 거기에 가훈을 적어 나눠주었다. 이 달걀을 받은 한 소년이 산에서 군인을 만나게 되고, 그 달걀을 군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군인은 다름 아닌 로자린드 부인의 남편이었다. 남편은 달걀에 적힌 가훈을 보고 자신의 아내를 찾을 수 있었다. 그 후 아내는 남편을 찾을 수 있게 해준 달걀을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나눠 주었고, 그것이 부활절 달걀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달걀에 적혀 있던 가훈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였다.

또 다른 유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육식이 금지되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일주일 간 쌓인 달걀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풍습이 생긴 것이다. 부활절이었기에 축제의 기쁨을 달걀에 알록달록 그려 사람들과 나누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미국의 남북전쟁 기간 중에 '부활절 달걀'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달걀 이전에는 토끼가 부활절을 상징했었다고도 한다. 여러 이야기 중에 로자린드 부인의 이야기가 부활절 달걀의 유래가 된 이유를 기억해야 할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가훈은 부활의 핵심이자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소중한 메시지이다. 부활의 참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참된 깨달음::

마침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창26:12~13).

'마침내', 이는 '드디어', '기어이', '결국'이라는 뜻이다.

성경은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침내'라는 낱말이 담는 의미는 크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많은 사연 끝에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삭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 부자가 된 과정은 무시하고, 생각해보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대복을 받은 것은 '마침내' 된 것이다. '기어이' 이루고야 만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정 없는 결과를 원한다. 평탄한 과정을 소원하고, 짧은 과정을 원한다. 그러나 골이 깊어야 산이 높은 법 아니겠는가. 아이가 자라야 어른이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과정을 지나야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거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많은 세월동안 숱한 비바람을 견뎌야 하고, 뜨거운 햇볕을 참아야 하고, 사람들의 발길질도, 갉아먹는 벌레에도 참아내야 마침내 거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목에는 옹이가 많은 것이다. 많은 위인들이나 성공자들이 거둔 승리 역시 모두 '마침내' 이룬 것이다. '끝내' 이룬 것이다. 인내와 노력으로!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은 '마침내' 꽃을 피우려는 과정이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菊花)옆에서'라는 시가 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는데도 과정이 있어야 이윽고 국화꽃이 피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 시련과 고통이라는 과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냥 있었는가? 아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고야 '마침내' 악한 마귀를 이기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수고는 '마침내' 거두게 될 성공과 승리의 전주곡이다. 그러니 기운 내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5:4).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족저근막염

A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닥에 첫발을 내딛을 때, 억 소리가 저절로 튀어나올 만큼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특히 발뒤꿈치 쪽이 송곳에 찔린 것처럼 아팠지만 몇 걸음 걸어보니 통증이 점차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아 보니 족저근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을 세로로 가로지르는 족저근을 둘러싼 근막이 당겨지면서 통증을 초래하는 병이다. 원인으로는 발뒤꿈치뼈와 이어진 족저근막 부위의 미세 손상에 의해서 근막과 그 주위에 염증이 생겨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년에게 흔하며 마른 사람보다 비만한 사람에게 잘 생기며, 편평족이나 발등이 높이 올라온 오목발일 때도 걸릴 위험이 높다. 통증은 대개 발뒤꿈치 안쪽에서 시작하며 발뒤꿈치의 바닥에서 발의 안쪽 가장자리를 따라 퍼진다. 특징적으로 아침에 일어나 첫발을 디딜 때와 처음 몇 걸음 걸을 때 심하게 통증을 느낀다. 수 분간 움직이면 약간 통증이 줄다가 오랜 시간 움직이면 차츰 통증이 악화된다.

진찰할 때 발바닥의 발뒤꿈치뼈 안쪽 융기된 부위를 누르면 심한 통증이 생기고 발바닥을 펴면 족저근막이 긴장되어 아프다. 단순영상검사를 기본으로 시행하는데 발뒤꿈치뼈에 통증을 유발하는 뼈돌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MRI 검사를 해도 되지만 고가이므로 초음파검사로 족저근막의 손상 정도를 관찰하고 아프지 않은 발과 비교해서 진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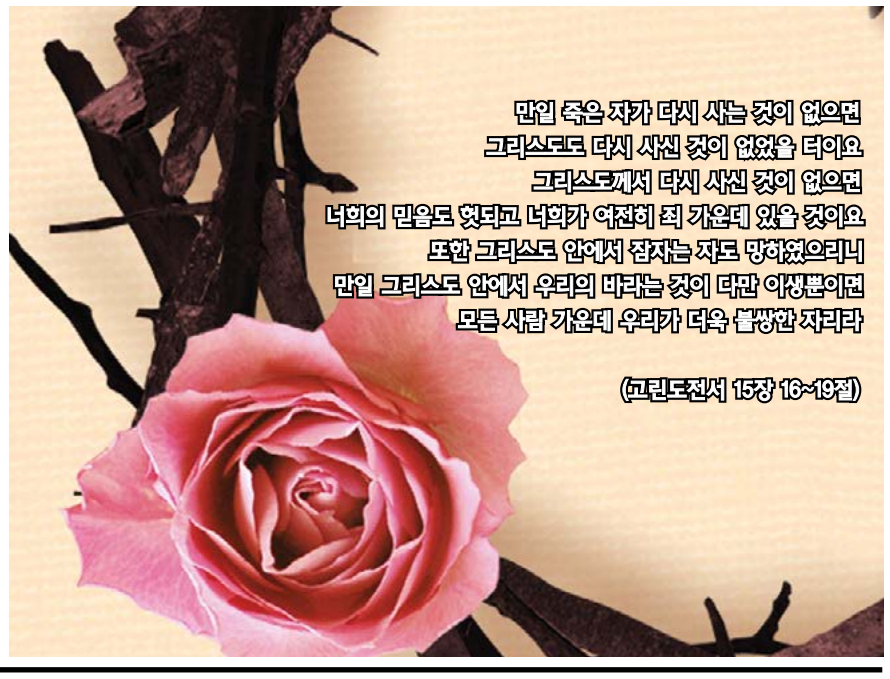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이 지나치게 긴장되어 있으면 걸을 때 족저근막에 더 많은 힘이 작용하므로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발뒤꿈치를 이완시킨다. 과도한 활동은 피하고 발뒤꿈치 충격을 줄이고 발뒤꿈치에 실리콘 패드를 대고 활동하도록 한다. 소염진통제를 복용해서 염증을 줄이고, 그래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체외충격파치료를 한다. 체외충격파는 손상된 근막에 자극을 주어 정상적인 상처 치유 과정이 빨리 이뤄지게 하는 치료방법이 된다. 족저근막 스트레칭은 발바닥 아래에 테니스공을 놓고 발을 앞뒤로 움직이면 된다.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은 두 다리를 앞뒤로 벌리고 앞쪽 다리를 구부려 뒤쪽 다리를 스트레칭한다. 스트레칭 방법을 잘 유념하여 내 발이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자.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Good News

체스 게임에 있어서 '체크메이트(check-mate)'란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외통수'란 표현이 적합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왕을 공격해서 그 왕이 도망갈 자리가 없거나 도망을 치더라도 꼼짝없이 잡히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체크메이트'란 게임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영국 런던의 어떤 화랑에는 '체크메이트'란 제목의 그림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악마와 체스게임을 하던 파우스트가 외통수에 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악한 마귀의 궤계에 빠져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의 불쌍한 인간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랑을 찾은 세계 체스 챔피언이 그 그림을 유심히 보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 한 수가 더 남아 있어!"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신의 한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탄은 모든 것이 끝나고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한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주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신의 한 수를 두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1:18).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